

4 뉴스

학생창업 '패션브랜드' 온라인몰 입점 성과

이지민 기자 delicate@khu.ac.kr

우리학교와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에서 주관한 패션브랜드 창업 지원 사업이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인 멜레온(MELEON)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코오롱몰, 무무즈 등에 입점했으며 프리미엄 여성복 브랜드인 이뉴(eneue), 풋디(PUTDI) 및 북유럽 감성 험웨어 브랜드인 타로니(TALONII) 등은 자체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중이다.

지난 5월, 우리학교 의상학과와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업에

선정돼 우리학교 의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션브랜드 창업 지원 공모전을 열었다. 우리학교와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의 산합협력을 통한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 공모전에서 18개 팀이 경합을 벌여 총 4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팀의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룩북 촬영 및 제작, 소재 선정 및 샘플 제작 의뢰, 온라인 스토어 및 팝업스토어 운영, 브랜드 마케팅, 원가 계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패션브랜드 창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조민진(의상학) 교수의 지도 아래 브랜드 창업 전반을, 동

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원금으로 샘플제작과 제품생산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동대문구청에서는 마케팅과 세금관련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원 아래 생산된 상품의 판매 수익을 최소 1회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에 일감을 수주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게 된다.

풋디(PUTDI)의 대표 김시내(의상학 2016) 씨는 “생산이나 공장 핸들링 등 학생 신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배우고 싶어 공모전에 지원했다”며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의 봉제장인 분들의 높은 기술적 이해가 기성복을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멜레온(MELEON)의 대표 이연재(의상학 2017) 씨 또한 “패션브랜드 창업을 통해 여러 가지 역할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며 “실무 경험을 통해 각 분야 직무에



지난 5월 우리학교 의상학과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가 패션브랜드 창업 지원 공모전을 열었다.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학생들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당초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의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나 학생들과의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거론되었으나, 브랜드 소유권 문제로 인해 학생들 자체 브랜드 창업이 되, 일감수주 형식을 통해 봉제협회를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창업지원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학생들의 패션브랜드 창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뉴(eneue)의 대표 이하늘(의상학 2016) 씨는 “창업 지원 사업은 12월에 마감되지만, 동대문구 패션봉제연합회에서 연결시켜준 공장들과는 12월 이후에도 같이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신정(의상학) 교수는 “브랜드 런칭을 위한 디자인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패션브랜드 창업에서 생산공장과의 연결에 애를 먹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이러한 의상학과 학생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유 교수는 “생산공장과의 연결과 생산비 지원에 중점을 둔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지원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모두에게 좋은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교육 인프라 구축한다

장혜림 기자 vicky2152@khu.ac.kr

【국제】전자정보대학 신관 지하 1층에 ‘SW 실습실’과 ‘SW 개발 및 활용공간’ 등의 시설을 포함한 SW스튜디오가 구축됐다.

SW스튜디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인 SW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 시설이다. 개설이 완료된 SW스튜디오 중 B03호는 GPU 서버 및 PC를 설치하여 AI 실습 및 프로젝트 목 적의 ‘오픈 AI Lab’으로 구축했다. B06호의 경우에도 PC 42대 모두 GPU를 장착하여 AI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B09호와 B11호는 SW 통합 강의실로 구축하여 대형 강좌 개설 및 SW 행사 개최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공간 두 곳을 신규 개설해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및 팀프로젝트 진행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협업 공간으로의 쓰임을 기대하고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장 이영구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자 정보대학 신관 지하 1층 실습실의 PC, 모니터, 책상, 의자를 최신 장비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복도 공



SW스튜디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인 SW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 시설이다.

(사진=장혜림 기자)

간 전체의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이승아 연구원은 “SW 실습실과 휴게 공간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SW스튜디오 개설을 통해 해커톤, SW 페스티벌 등 대형 소프트웨어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토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SW스튜디오를 마련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주관하는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는 2017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지원금은 연간

20억 수준이다. 우리학교는 해당 사업을 4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2년의 지원 기간이 남아있다.

정부의 지원 취지에 따라, 경희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창의적 사고와 복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V자형 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이 연구원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지만, 다전공 학생들과 타 학과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우리 사업단은 최신 IT 기술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

하지 못한 해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강화된 SW전공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장 이 교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측에서 인공지능 관련 후속사업도 준비 중인 만큼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세부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본 SW중심대학사업이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인 만큼 대부분의 연구비 예산을 실습실 구축 혹은 해외 인턴 기회 제공,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단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GPU-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핵심

용인시, 도시공원 정비나서

장혜림 기자 vicky2152@khu.ac.kr

【국제】지난 27일 용인시가 국도비 25억원을 들여 기흥저수지 등 도시공원 5곳의 녹음 식재 및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정비 대상인 공원은 기흥구 고매·공세·하갈동 일원 기흥저수지를 비롯해 기흥구 중동 동백호수공원, 기흥구 영덕동 덕골근린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정평근린공원, 기흥구 신갈동 만골근린공원 등 5곳이다.

특히 우리학교 주변에 위치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엔 도비 5억원을 투입해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가로수 400주를 식재해 기흥저수지 수변 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백호수공원에는 8억 원을 들여 상습침수로 부식된 기존 목교를 철거하고 석교와 경관조명의 설치가 계획돼있으며, 덕골근린공원의 경우 저류지를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보다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